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

김현지, 양명숙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Hyun-ji Kim, Myong-Suk Yang
Dept. of Counseling, Han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적응적인 대처를 돕고자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 충북의 각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과 소년원, 청소년 보호치료시설 등에 직접 방문 및 의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Pearson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더 많은 설명력을 나타낸 변인은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였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설명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대처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ive explanation of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o help adaptive coping style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under stress situation. To this end, 101 school-dropout adolescents were surveyed by visiting and requesting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ing project, youth detention center, and adolescent protective and treatment facilities in Daejeon, Cheongnam, and Chungbuk. As analysis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coping strategie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y. Second, a variable that showed greater explanation power for stress coping strategies was the environmental variable, the social support. Third,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greater explanation power when the environmental variable, the social support, and the personal variable, the ego-resiliency, were put in at the same time for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sult, this study implies that schools, community, national policy effort and systemetic approach are required as well as improvement of personal coping capabilities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ies school-dropout adolescents face.

Key Words : School-Dropout Adolescent, School-Dropout Adolescent Policy,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Stress Coping Strategies

This study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Hannam University(2015. 2. 13).

Received 1 November 2016, Revised 20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Yang Myong-Suk(Hannam University)

Email: lmsyang@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신설 및 운영하였으며[1],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매년 발표되었다[2,3,4,5,6]. 그러나 학교를 떠나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그들이 학교 밖에서 만족스러운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변인에 관한 연구는 적다. 2002년 이후 10년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총44편만이 학업중단을 주제로 연구되었고 이중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27편으로 가장 많았으나 학업중단 이후 적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총8편에 그치고 말았다[5].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 변화 지표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를 기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7]. 그러나 양적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6만 명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생하는 것은 전체 학생 수 감소추이를 고려 해 볼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대처 할 수 있는 국가의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1].

학업중단으로 인한 결과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손실,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범죄율 증가, 안정적 직업구조의 붕괴 등으로 이들이 성인되어 사회에 진출 했을 때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8,9,10,11]. 또한 개인적 측면에서는 저학력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낮은 경쟁력, 비행 또는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 개인의 낮은 경제력 수준 축발 요인, 대인관계에서의 낙인감 경험 등의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어 국가적으로 비행,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한다[12].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겪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과제는 스트레스 원으로 유발된다[13,54].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강도는 일반적 수준의 신체, 심리, 정서, 인지적 변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급격한 발달적 변화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변화에 있어서도 또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동년배 청소년보다 이른 사회진출로 인한 학생신분의 변화, 외부 환경에서 받는 요구, 부모의 기대 및 책임감의 증가 등에 따른 재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위기 반응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14].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교를 떠난 후 다양한 대안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후 만성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트레스원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성장 촉진의 요인이 될 수 있다[15]. 즉, 학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원인을 찾는 것 못지않게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처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성인기로 가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상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수준과 사회 또는 학교와 같은 외부 환경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 질 때 치료적 개입이 더 효과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16].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28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5월28일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를 떠난 후에도 교육기관의 보호체계 안에서 검정고시, 취업, 대안교육, 건강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37]. 그러나 청소년의 동의여부에 따라 교육정책기관의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의 접근성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통계상 추정치로만 예측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교라는 장소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발달을 하도록 보호하는 체계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를 떠남으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위기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능력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경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현숙, 구본용[35]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청소년

의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며서 각 개인의 내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지각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는 대처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6].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학업중단 이후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학업중단과 같은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의 스트레스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해 나가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찾고자 주목해 왔다[17,18].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19, 20, 53], 자기효능감[21], 희망[22], 자아존중감[23, 52], 심리적 성장환경[24], 적응유연성[56] 등이 있었으며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지지[25], 부모의 양육태도[26],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27], 가족탄력성[57] 등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변인들 중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28] 나타났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하고 사회적 배제 및 우울감은 낮아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29]. 또한 사회적지지원 중 부모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자살사고를 경감시키는 변인으로써 사회적지지를 주목하였으며 [30] 중학생의 자살행동 및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31]. 따라서 자살, 학교부적응, 학업스트레스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원에 노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의 보호 및 예방차원의 역할로써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위종희(2012)는 초기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있는 변인 중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주장하며[32] 부모 및 가족의 지지가 적더라도 학교, 외부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사회적지지를 해 준다면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조장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33].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업중단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업중단 후 가장 크게 직면한 어려움 중 한 가지는 학업중단 전에 학업을 중단 후 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기관 및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34]. 또한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학업중단 이후 진로상담, 심리상담, 일자리 소개 등의 정보가 필요했으나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시점에 제공받은 정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절차와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대안 교육기관 정보 등의 수준에 머물렀다[1]. 이로 인해 학업중단 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처양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학업중단 후 삶에 대한 대처는 인간의 전체적 발달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개인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적 측면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회전반의 낙인적 시선에 대한 인식 개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은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발휘 하도록 돕는 것은 개인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을 현재 중단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여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적응적이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적응적 대처전략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이었던 자로 조작적 정의한다. 즉, 매일 학교에 등·하교 하지 않으며 학업을 현재 중단 한 자로서 중학교의 유예와 면제자를 포함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 퇴학, 유예, 면제자(교육통계서비스, 2014)를 모두 포함한다.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은 14세에서 19세 사이의 대전·충남(천안, 공주)과 충북(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보호치료시설(효광원), 소년원 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11월초까지 총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표집 대상은 서울, 경기도, 세종, 대전, 충남·북의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과 학업중단 청소년이 이용할 만한 시설 중 본 연구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기관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 후 면담을 요청하여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설문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 받은 후에 연구를 승낙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두드림·해밀), 보호시설(소년원, 효광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이 실시되었다. 이들 기관 중 소년원과 청소년보호치료시설(효광원)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배포할 수 없었으므로 기관의 담당선생님에게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기관의 담당선생님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에 관련한 방법을 연구의 목적, 질문지의 내용, 설문지의 질문에 대한 유의할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메일과 서면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애매하거나 질문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설문지 회수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과 담당 선생님이 회수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121명 중 101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윤혜정(1993)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38,39]. 문항은 총 25문항이며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지지

에 대한 지각의 범주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받는 지원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3.2.2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유성경, 심혜원(2002)이 변안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4문항으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40].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2이었다.

3.2.3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김정희(1987)가 수정·보완한 62개 문항 중에서 재구성한 김여진(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41,42]. 전체 27문항으로 ①전혀 해보지 않았다, ②한두 번 해 보았다, ③자주 해보았다, ④항상 해 보았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추구대처방식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3.3 분석 방법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Table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101)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58***	1													
3	.25**	.36***	1												
4	.27**	.32***	.34***	1											
5	.35***	.30**	.52***	.20*	1										
6	.29**	.22*	.40***	.04	.64***	1									
7	.25**	.22*	.30**	.28**	.47***	.47***	1								
8	.17	.13	.25**	.02	.50***	.54***	.29**	1							
9	.47***	.44***	.36***	.26**	.43***	.57***	.50***	.42***	1						
10	.36***	.31**	.45***	.16	.77***	.81***	.62***	.84***	.71***	1					
11	.36***	.35***	.47***	.27**	.57***	.48***	.48***	.44***	.52***	.63***	1				
12	.40***	.33***	.55***	.40***	.37***	.33***	.34***	.27**	.46***	.43***	.78***	1			
13	.25**	.18	.27**	.23*	.18	.10	.21*	.16	.25**	.23*	.67***	.71***	1		
14	.16	.10	.53***	.29**	.30**	.13	.22*	.23*	.27**	.30**	.56***	.65***	.66***	1	
15	.36***	.30**	.52***	.35***	.43***	.33***	.38***	.34***	.45***	.49***	.90***	.91***	.86***	.78***	1
skewness	-.72	-.58	-.65	-.49	-.02	-.04	.11	-.23	-.31	.14	.12	.31	.54	-.21	.17
kurtosis	-.40	-.56	.93	-.43	.23	-.16	.32	.14	-.07	.43	-.47	-.13	1.14	.20	.56

$p < .05$, ** $p < .01$, *** $p < .001$

1. Mother, 2. Father, 3. Friend, 4. Teacher, 5. Interpersonal relationship, 6. Curiosity 7. Emotional control, 8. Activity, 9. Optimism
10. Ego-resiliency, 11. Problem-focused coping, 12. Emotional-focused coping, 13. Wishful thinking, 14. styles Seeking social support
15. Stress Coping Strategies

<Table 1> 에서 나타났듯이 주요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 한 결과 스트레스대처방식은 모든 독립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다른 독립변인들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지지원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친구는 정서완화적 대처방식($r=.55, p<.001$),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방식($r=.53, p<.001$), 문제지향적 대처방식($r=.47, p<.001$)과 보통의 정적상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r=.27, p<.01$)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 친구는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하위변인과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전체 하위변인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변인 전체($r=.49, p<.001$)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대인관계는 문제지향적 대처방식($r=.57, p<.001$), 활력성도 문제지향적 대처방식($r=.48, p<.001$), 정서완화적 대처방식($r=.33, p<.001$)의 순서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호기심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r=.44, p<.001$)과 보통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낙관성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r=.52, p<.001$), 정서완화적 대처방식($r=.46, p<.001$)과 상관이 있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전체는 사회적지지의 친구($r=.45, p<.001$)와 정적상관을, 어머니($r=.36, p<.001$), 아버지($r=.31, p<.01$)는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어머니는 자아탄력성의 낙관성($r=.47, p<.001$)과 아버지는 낙관성($r=.44, p<.001$)과 상관관계가 있다. 친구의 경우 대인관계($r=.52, p<.001$)에서 상관을 있었으며 활력성($r=.40, p<.001$), 낙관성($r=.36, p<.001$), 감정통제($r=.30, p<.01$), 호기심($r=.25, p<.01$)이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선생님은 감정통제($r=.28, p<.01$), 낙관성($r=.26, p<.01$), 대인관계($r=.20, p<.05$)의 순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절대값 2와 7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4.2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의 관계

<Table 2>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측치는 제외되었다.

<Table 2>에서 사회적지지의 지지원으로 구성된 모

<Table 2> Dependent variables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SE	t	b	β	SE	t
Social Support	Mother	.004	.002	.193	1.887	.003	.136	.002	1.310
	Father	.000	.002	-.014	-.134	-.001	-.044	.002	-.417
	Friend	.012	.003	.433	4.642***	.010	.376	.003	3.730***
	Teacher	.006	.002	.225	2.436**	.005	.183	.002	1.929
Ego-resili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6	.026	.117	.220
	Curiosity					-.094	-.130	.088	-1.068
	Emotional control					.129	.144	.090	1.433
	Activity					.148	.184	.081	1.829
	Optimism					.100	.138	.085	1.176
R^2						.399***			
ΔR^2						.399			
						.472***			
						.074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Dependent variables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Problem-focused coping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SE	t	b	β	SE	t
Social Support	Mother	.005	.169	.003	1.553	.001	.046	.003	.460
	Father	.003	.106	.003	.935	.002	.076	.003	.742
	Friend	.012	.348	.003	3.517***	.006	.178	.003	1.822
	Teacher	.005	.156	.003	1.592	.004	.118	.003	1.284
Ego-resili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201	.162	.145	1.382
	Curiosity					-.008	-.009	.110	-.072
	Emotional control					.202	.178	.111	1.818
	Activity					.210	.205	.100	2.104*
	Optimism					.119	.130	.105	1.139
R^2						.322***			
ΔR^2						.322			
						.502***			
						.179			

$p < .05$, ** $p < .01$, *** $p < .001$

델1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전체에 대해 총 39.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친구($\beta=.003$, $p<.001$), 선생님($\beta=.002$, $p<.01$)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모델2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총 47.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친구($\beta=.376$,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3,4,5,6>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Table 3>을 살펴보면 모델 1에 대해 문제지향적 대처방식은 32.2%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beta=.348$, $p<.001$)에 대한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 후 모델 2에서 자아탄력

성을 투입한 결과, 50.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델2에서는 친구($\beta=.178$)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졌고 자아탄력성의 호기심($\beta=.205$, $p<.05$)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정서완화 대처방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와 같이 정서완화 대처방식에 대해 모델1은 45.6%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beta=.446$, $p<.001$), 선생님($\beta=.244$, $p<.01$), 어머니($\beta=.218$, $p<.05$)가 영향을 보였다. 그 후 모델 2에서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49.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델2에서는 친구($\beta=.423$, $p<.001$)와 선생님($\beta=.225$, $p<.05$)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모델1은 17.4%의 설명력을

<Table 4> Dependent variables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Emotional-focused coping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i>b</i>	β	<i>SE</i>	<i>t</i>	<i>b</i>	β	<i>SE</i>	<i>t</i>
Social Support	Mother	.006	.218	.003	2.230*	.005	.178	.003	1.743
	Father	.000	-.003	.003	-.029	-.001	-.032	.003	-.309
	Friend	.014	.446	.003	4.997***	.014	.423	.003	4.252***
	Teacher	.007	.244	.003	2.754**	.007	.225	.003	2.408*
Ego-resili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087	-.076	.136	-.640
	Curiosity					-.025	-.029	.103	-.241
	Emotional control					.082	.078	.104	.791
	Activity					.097	.103	.094	1.035
	Optimism					.122	.144	.098	1.243
<i>R</i> ²				.456***				.493***	
ΔR^2				.493				.036	

p<.05, ** *p*<.01, ****p*<.001

<Table 5> Dependent variables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Wishful thinking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i>b</i>	β	<i>SE</i>	<i>t</i>	<i>b</i>	β	<i>SE</i>	<i>t</i>
Social Support	Mother	.004	.183	.003	.130	.004	.192	.003	1.524
	Father	-.001	-.044	.003	.728	-.001	-.059	.003	-.457
	Friend	.006	.217	.003	.051	.007	.261	.003	2.126*
	Teacher	.005	.206	.003	.061	.004	.156	.003	1.356
Ego-resili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076	-.078	.142	-.534
	Curiosity					-.157	-.217	.107	-1.465
	Emotional control					.128	.145	.108	1.183
	Activity					.118	.148	.098	1.214
	Optimism					.052	.073	.102	.507
<i>R</i> ²				.174***				.220*	
ΔR^2				.174				.046	

p<.05, ** *p*<.01, ****p*<.001

<Table 6> Dependent variables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tyles Seeking social support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i>b</i>	β	<i>SE</i>	<i>t</i>	<i>b</i>	β	<i>SE</i>	<i>t</i>
Social Support	Mother	.002	.086	.003	.810	.002	.080	.003	.734
	Father	-.005	-.206	.003	-1.862	-.006	-.235	.003	-2.117*
	Friend	.016	.541	.003	5.615***	.017	.557	.003	5.258***
	Teacher	.005	.183	.003	1.910	.004	.136	.003	1.368
Ego-resili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050	.046	.136	.368*
	Curiosity					-.251	-.314	.102	-2.454
	Emotional control					.069	.070	.104	.667
	Activity					.159	.180	.093	1.706
	Optimism					.108	.137	.098	1.106
<i>R</i> ²				.357***				.418***	
ΔR^2				.357				.061	

p<.05, ** *p*<.01, ****p*<.001

보였다. 그 후 모델2에서 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델2에서는 친구($\beta=.261, p<.05$)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Table 6>의 사회적지지 추구대처방식에 대하여 모델1은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beta=.541, p<.001$)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 후 모델 2에서 전체 4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5. 결론 및 논의

5.1 결론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의 삶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적응적 대처방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돕는 변인으로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고 선정한 변인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갖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분석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 본 결과 사회적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고수준의 스트레스에 처하더라도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3]. 이를 통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 하위변인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지닌 하위변인의 지지원 중 친구로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친구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지지원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적응 청소년과 학교부적응 청소년 양쪽 모두 친구지지를 가장 중요한 지지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된다[44]. 또한 사회적지지의 지각 수준에서 지지원인 가족, 친구, 교사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하고[45,4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하여 친구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우울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 일

치한다[47].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 본 결과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2006)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으며 부적응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다[49]. 안윤아(2011)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문제지향적 대처방식과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 또는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같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50].

넷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체에 대하여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호기심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5.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다른 표현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난 학생이라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교육적 혜택이나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편견 및 낙인감을 지속시키도록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과정 및 결과가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 환경체계인 사회적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후 관리감독의 체계 안에 있기를 청소년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꿈드림)와 같은 청소년상담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시스템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표집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방만한 기관에서 만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살펴본 자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이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시사되었고 학교 밖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지지 보호체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의 친구는 정서적으로 부모보다 더 많은 의존적 성격을 띠며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적인 대상으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친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안정적이며 호혜적 우정을 형성한다. 그러나 반대로 친구를 통해 일탈 및 비행행동에 연루되거나 친구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다.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정은 청소년 개인에게 무기력감을 형성하거나 자존감을 훼손 받을 가능성 역시 예측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학업중단을 직접 유발하게 하거나 가족유대감과 매개하여 학업중단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48].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떠난 후 그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해 협소한 자원을 형성하도록 한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와 같은 외부의 환경적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그들의 우정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34]. 이는 협소한 자원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에도 질적으로 건강하고 호혜적 우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양질의 우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성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학업 뿐 아니라 사회적기술과 교사, 친구와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부모 외에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배경이 학교부적응, 가사, 질병, 품행과 관련한 문제[7]로 인해 유발되었으므로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업중단 청소년이 스트레스원을 유발하는 문제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부적응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각 개인이 보유한 개인적, 환경적 대처자원에 따라서 적응과 부적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체계 안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

고 적응적인 대처를 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향상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호기심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 또는 문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다양한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라는 시기적 한계와 경험의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51] 이러한 시기적 어려움에 대하여 새롭게 바라보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노력인 호기심이 증가할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폭넓은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인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소년원,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일시 보호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검정고시 학원,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자료가 수집 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가 실시되었으므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양한 외부체계인 학교, 가족, 교사, 친구 등에 의한 평가와 같은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 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un Cheol-Gyeong, Cho Ein-Jae, Kim Gang-Ho, Yu Seong-Nyeol, Kim Tae-Hwa, Son Hui-Jeong.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and policy support for school dropouts I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 1-484, 2015.
- [2] Khu Bon-Yong, Yoo Jae-Min, "Neural network mode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dropout."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 1, pp. 133-146. 2003.
- [3] Kim Ji-Hye, Ahn Chi-Min, "Runaway youth's school dropout :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2, pp. 133-157. 2006.
- [4] Ko Kee-Hong, "The problem of school dropout and intervention of counseling."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4, No. 1, pp. 117-136. 2003.
- [5] Keum Myoung-J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drop-ou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4, No. 1, pp. 299-317. 2008.
- [6] Sung Yun-Sook, "A study of the process of adolescents' dropout from school and social adapt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 2, pp. 295-343. 2005.
- [7]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Stistical Published Materials, Issue Statistics", <http://kess.kedi.re.kr/content/issue> (October 14, 2016).
- [8] Kim Young-Hee, Huh Chul-Soo, "Research trends on secondary school dropouts: 1991-2011."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1013-1028. 2012.
- [9] Nam Ki-Gon, "The economic effect of high School dropout in Korea." *Sogang Economic Papers*, Vol. 40, No. 3, pp. 63-94. 2011.
- [10] Leem Geun-Chang, "A study of factors related with adaptability after the school dropout for juvenile dropouts." *Ma.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 [11] Jung Min-Sun, Jang Ji-Young, Choi Hee-Cheol,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norm mal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4, pp. 1691-1706. 2010.
- [12] Kim Oak-Youb, Lee Yeon-Sook, Won Yoo-Mi, "An analysis into perception an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ropout of study of juveniles in Jeollabuk-Do."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3, pp. 725-741. 2004.
- [13] Hong Yeong-Su, Jeon Seon-Yeong,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2, No. 1, pp. 249-272, 2005.
- [14] Compas, Bruce E., "Psychobiological processes of stress and coping."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094, No. 1, pp. 226-234, 2006.
- [15] Jeon Ji-Gyeo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for pre-marital couple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11.
- [16] Eccles, Jacquelynne S., Midgley, Carol., Wigfield, Allan., & Mac Iver, Douglas.,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48, No. 2, pp.90-101, 1993.
- [17] Park Hyun-Su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high-risk adolescents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7, No. 37, pp. 195-216. 1999.
- [18] Block Jeanne Humphrey.,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No. 37, pp. 39-101. 1980.
- [19] Lee Yoon-Joo, "The effects of suicidal risk factors on suicidal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2, pp. 659-673, 2008.
- [20] Philippe Frederick L., Laventure Samuel., & Beaulieu-Pelletier Genevieve., Lecours Serge., & Lekes Natasha, "Ego-resiliency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30, No. 6, pp. 583, 2011.
- [21] Seo Seok-Nam, Lee Sang-Goo, Lim Sang-Ho,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327-333, 2012.
- [22] Kim Yun-Jeong, Lee Chang-Seek,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539-547, 2014.
- [23] Leem Geun-Chang, "A study of factors related with adaptability after the school dropout for juvenile dropouts". *Ma.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 [24] Jang Gyeong-Mun, "The relations of ego-resiliency, stress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 No. 4, pp. 143-161. 2003.
- [25] Compas, Bruce E.,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1, No. 3, pp. 393-403. 1987.
- [26] Kwon Jae-Hwan, Lee Eun-Hee,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1, pp. 325-351. 2006.
- [27] Lee Ji-Hy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tress coping behavior."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6.
- [28] Park Yeong-A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With its focus on adolescents living in orphanages". Ma.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0.
- [29] Oh Eun-Gyeong, "The difference among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by types of youth Who Are dropouts of school."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2, No. 2, pp. 65-80, 2014.
- [30] Lee Ji-Soo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mpulsivity, aspects of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0 No.3 pp. 1-22, 2013.
- [31] Kim Jin-A,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upon emotion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3, pp. 359-377, 2015.
- [32] WI Jong-He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12.
- [33] Glozah Franklin N., & Pevalin David J., "Social support, stress, health, and academic success in Ghanaian adolescents: A path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7, No. 4, pp. 451-460, 2014.
- [34] Cho A-Mi, Lee Jin-Sook, "A qualitative study on life and needs of school drop out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7, pp. 145-170, 2014.
- [35] Shin Hyeon-Sook, Khu Bon-yong, "Stress coping and its relationship to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9, pp. 189-225. 2001.
- [36] Yi Yeon-Duk, Hwang Gi-Chul, "The effects of time management behavioral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stress coping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0, pp. 517-526, 2013.
- [37] <http://www.gotoschool.re.kr>. september 5, 2016.
- [38] Park Jee-Won.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39] Yoon Hye-Jung, "A perception of everyday stress and social network support in adolescence." Ma.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1993.
- [40] Yoo Sung-Kyung, Shim Hae-Woo,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41] Kim Jung-Hee,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 [42] Kim Yeo-Jin, "Th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in parent-child, stress coping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a.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2006.
- [43] Lee Hu-Seung,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ego-resilience on stress perce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4.
- [44] Song Woon-Yoong, Kwak Soo-Ran, "A research on protection factors influencing on teenager's

- school adaptation.”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3, pp. 107-129. 2006.
- [45] Min G-rea,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2012.
- [46] Kim Eun-Mi,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isk assessment tool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y recidivism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2, pp. 119-128, 2014.
- [47] Park Jung-Hyun, “The effect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the transition period :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Ma.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13.
- [48] Son Chung-Ki, Bae Eun-Ja, Kim Young-Tae, “An analysis study on family and social-environmental factors of adolescents school dropou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6, pp. 2504-2513, 2012.
- [49] Lee Sung,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environment, problem-solving, ego-resilienc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school dropout juvenile delinquent.” Ma.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50] An Yun-A,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stress and stress coping.” Ma.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11.
- [51] Jang Hwee-Sook,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68-272, Pakyoungsa ; Seoul, 2015.
- [52] Jeon Ji-Kyung, Rhee Kyung-Ah, Seo In-Doug,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the ethnical identity of third culture adolescents-focusing on the medication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93-104, 2016.
- [53] Jung Kyung-A, Kim Bong-Whan,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99-308, 2015.
- [54] Park Sung-Joo,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287-293, 2016.
- [55] Kim Bum-Goo,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dropou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4, pp. 315-337. 2012.
- [56] Koh Seung-Hee, “Convergent momentum strategy in the Korean stock marke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7-132, 2015.
- [57] Choi Hye-Jung, Back Soon-Gi, “A study on depressive disposition by convergence approach of leisure history and family situat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95-302, 2015.

김 현 지(Kim, Hyun Ji)



- 2013년 2월 : 한남대학교 상담학 석사
- 2016년 12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상담학 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발달
- E-Mail : 20002019@naver.com

양 명 숙(Yang, Myong suk)



- 1990년 12월 :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심리학과 (철학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집단 및 가족상담, 발달
- E-Mail : msyang@hnu.kr